

저자 (Authors)	이운주, 김진하 Lee, Woonju, Kim, Jinha
출처 (Source)	<a href="#">도덕윤리과교육연구</a> , (72), 2021.8, 223-249 (27 pages) <a href="#">Journal of Moral &amp; Ethics Education</a> , (72), 2021.8, 223-249 (27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a> korea society for moral & ethics education association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0600941">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0600941</a>
APA Style	이운주, 김진하 (2021). 고등학교 도덕과 교과서의 원효 일심 사상 서술 검토 -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 도덕윤리과교육연구, (72), 223-249.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9/15 09:51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고등학교 도덕과 교과서의 원효 일심 사상 서술 검토

-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

Reviewing the description of Wonhyo's One Mind in High school Moral  
Textbooks

- Focusing on 2015 Curriculum -

이운주\* · 김진하\*\*

---

### 《 요약 》

---

원효의 일심(一心)사상의 의미와 의의는 무엇이며, 고등학교 도덕과 교과서는 원효 사상의 정수를 제대로 담아내고 있는가? 원효는 『대승기신론』의 이문일심(二門一心) 개념을 자신의 사상의 핵심으로 삼아 부처의 세계와 중생의 세계가 다르지 않음을 증명해내었다. ‘일심의 근원으로 돌아가 중생을 구제한다[歸一心源, 饒益衆生]’는 원효 사상의 실천적 목표가 일심 개념에 녹아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효의 일심 사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교과서를 서술해야 학생들에게 원효 사상의 본지(本旨)를 전달할 수 있다. 하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도덕과 교과서의 원효 일심 사상 서술에는 ‘중생 구제’라는 원효 사상의 궁극적 목표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거나, 이문일심의 관계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거나, 일심을 실제로 오인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내재해있다.

주제어: 원효 사상, 일심사상, 한국 불교, 도덕과 교과서

---

## I. 서론

불교 사상의 무아, 연기적 사유 방식은 서구식 실체론적 사고방식에 익숙한 오늘날 그 내용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서구식 실체론적 사

---

\* 주저자: 서울국제고등학교 교사 (pretty4063@snu.ac.kr)

\*\* 공동저자: 개봉중학교 교사 (godwlsqk@snu.ac.kr)

고방식에 의거하여 불교 사상을 이해할 경우 부처를 유일신으로 간주하거나 불성, 일심 등의 개념을 어딘가에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진리로써 간주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도덕과 교육 내에서 불교 사상 혹은 불교 윤리를 다룰 경우 불교 사상이 가지고 있는 기본 사유 방식을 바탕으로 불교 윤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과내용 선정 및 서술에 있어 엄밀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과 교육 내 불교 윤리와 관련한 교과서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도덕과 교과내용학 내 동양 윤리 관련 연구만 보더라도 주로 유학에 집중되어 있으며, 불교에 관한 연구는 유학에 관한 연구에 비해 그 비중이 작다. 도덕과 교과교육학에 해당하는 연구에 있어서도 교과서 서술내용이나 체계에 대한 분석보다는 전반적인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불교계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불교 윤리 내용 재구성을 위한 연구가 도덕과 교육 내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이에 대해 장승희(2016)는 도덕과 교과서에 불교 윤리는 5차 교육과정부터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덕과 교과서의 불교 윤리 내용은 크게 변화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한다.

그동안 이루어진 도덕과 교과서의 불교 윤리에 관하여 논의를 전개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신희정(2019), 홍현주(2017)의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서를 중심으로 초기 불교 관련 서술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 문제점 및 개선안을 제시한다. 신희정(2019)은 불교 윤리는 교과서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게 오류 없이 서술되어야 하며, 학생들의 이해 수준에 맞는 내용 제시가 필요함을 주장하며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도덕과 교과서(2018 윤리와 사상, 2017 생활과 윤리, 2019 고전과 윤리) 총 11종을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도덕과 교과서의 불교 윤리 서술내용 및 용어의 사용이 엄밀하지 못하다는 점을 비판하는데 특히 초기 불교의 서술내용을 근거로 비판한다. 홍현주(2017)는 교과서의 불교가 마치 고통의 세계관을 지닌 것처럼 서술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초기 불교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불교적 세계관이 고통이 아니라 행복관에 기여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는 불교 사상 교육 방향을 제시한다. 그 과정에서 2017 『윤리와 사상』 교과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초기 불교 서술내용과 용어 및 표현이 부적절함을 초기 경전에 근거하여 논증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과 관련하여서는 장승희(2016), 박학래(2011)의 연구가 있다. 장승희(2016)는 『윤리와 사상』 교과서의 서술내용을 분석하여 불교의 핵심인 이고득락의 내

용이 누락되었다는 점과 교과서 간 용어의 통일성 및 내용상의 오류가 있다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박학래(2011)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국 윤리를 검토하면서 한국 불교의 특징을 융합·통합적 성향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기존의 교과서 내용이 교종의 대표 승려로 원효를 선종의 대표 승려로 지눌을 단정지어 설명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대립적인 관점을 피해 한국 불교 사상 항목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7차 교육과정과 관련하여서는 김형중(2007)과 배문규(2006)의 논의를 살펴볼 수 있다. 김형중(2007)은 도덕과 교과서의 불교 윤리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팔정도, 보살계, 화쟁 사상의 설명에 관한 내용의 오류를 지적하며 정확한 서술의 촉구 및 정련된 불교 사상의 수록을 주장한다. 배문규(2006)는 7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국 윤리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중 원효의 사상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화쟁 사상 뿐만 아니라 일심 사상이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이외에도 2014년에 개최된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주최의 학술세미나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초·중·고 윤리 교과서를 검토하여 불교 윤리의 내용 분석을 통해 오류 검토 및 개선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원효 사상과 관련하여서는 원효 사상 서술 방식이 교종보다는 선종으로 오해될 위험이 있다는 점, 원효를 교종의 승려로 단정 짓기 어렵다는 점,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 서술된 원효 사상이 초등학교 수준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정확한 서술과 학교급별 수준에 맞는 내용을 선정하여 앞선 문제를 개선할 것을 주장한다.

선행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첫째, 도덕과 교과서의 불교 사상 혹은 불교 윤리의 용어 사용의 부정확성을 지적한다. 불성을 어딘가에 존재하는 절대적인 실체로 오해할 여지가 있게 내용이 서술되고 있으며, 원효의 일체유심조 개념을 선종의 불립문자, 이심전심과 같은 맥락에서 오해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둘째, 서술방식의 엄밀성이 떨어짐을 지적한다. 불교의 사유 방식에 대한 민감성이 없이 진행되는 서술은 오히려 불교를 고통의 세계관을 가진 사상으로 오인하거나 어떤 절대적 실체를 지향하는 사상으로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 또한 선행 연구의 문제의식을 이어받아 한국 불교의 내용을 주의 깊게 검토하고자 한다. 나아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도덕과 교과서에서 불교가 차지하는 위상에 비해 연구가 부족하고 특히 한국 불교는 초기 불교와 동등한 분량의 교과서 집필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그 연구가 더 부족하다. 선행 연구들은 비교적 초기 불교의 내용에 집중하고 있으며 한국 불교에 관한 연구는 덧붙여 진행되고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원효의 일심 사상을 정리하고, 이로부터 도덕과 교과서 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기준을 도출할 것이다. 그리고 이 분석 기준을 토대로 2019에 발간된 10종의 고등학교 도덕과 검정교과서(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와 2020 수능특강에 기술된 원효 사상의 용어 정확성 및 내용 적합성<sup>1)</sup>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덧붙여 2015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도덕과 집필 기준, 검토 기준 및 유의점을 참고하여 원효의 일심 사상의 교과서 서술내용 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 II. 원효의 일심 사상 이해

### 1. 원효의 일심(一心) 사상 이해

一切皆苦. 석가모니의 깨달음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인간의 삶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있다고 답한다.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이처럼 苦海에 빠져 허우적대는 衆生の 마음을 대상으로 한다. 중생의 마음과 부처의 마음은 둘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둘이 아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되므로 이 마음만 깨달으면 곧 해탈하여 모든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 원효에게 그 깨달음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一心이었다.

『大乘起信論疏·別記』에서 一心은 세움[立]과 깨뜨림[破], 있음과 없음, 진과 망, 적멸로서의 眞如門과 생멸의 상이자 근거로서의 生滅門 모두를 포용하는 개념으로 그려진다. 『大乘起信論疏』에서 원효는 특히 如來藏을 生滅門에 배속함으로써 모든 중생의 마음에 무명과 진여 모두 존재하고 있으므로 망념을 제거하여 一心으로 돌이켜 本覺을 구하기만 하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역설한다.

*일심법을 세운 것은 저 처음의 의심(즉, 법을 의심하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는 대승의 법은 오직 일심이 있을 뿐이며, 일심 이외에 다른 법은 없으나 단지 무명이 일심을 미혹시켜 온갖 세계[六道]에 떠돌게 됨을 밝히는 것이다. 비록 이 때에도 역시 일*

심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니, 이처럼 일심으로 팔미암아 온갖 세계를 지어내기 때문에 널리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바람을 일으킬 수가 있고, 온갖 세계가 일심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깨달은 자와 중생이 한 몸이 되어 일으키는 큰 자비심[同體大悲]’을 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의혹을 버려야만 큰 마음을 낼 수 있다.<sup>2)</sup>

위 인용문에서 원효는 覺과 不覺을 가르는 경계에 一心에 대한 자각이 놓여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원효는 求道の 목표를 一心의 근원으로 돌아가 중생을 구제하는 데서 찾았다[歸一心源, 饒益衆生]. 一心이라는 단어에 원효 사상이 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一心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과 중생을 구제하는 일은 어떻게 연결되는가? 원효의 사상을 一心二門을 중심으로 고찰하기 위해서는 우선 원효의 一心 이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一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一心에 ‘일체의 현상을 발생시키는 본체’의 지위를 부여하고 이를 眞如門과 生滅門을 초월한 절대적인 마음으로 이해하는 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러한 시도는 나아가 진여문과 생멸문을 본체와 현상의 구조로 파악하여 二門을 일심의 각기 다른 부분으로 오해할 위험이 있다. 원효가 펼치는 一心의 사유는 결코 궁극적 존재나 근원적 실체를 상정하지 않는다.

一心이라는 개념은 주로 ‘한 마음’, ‘하나의 마음’으로 번역되는데, 이는 ‘一’을 ‘하나’라는 숫자로 해석한 것이다. 이처럼 一心을 ‘하나의 마음’으로 번역해버리면 마치 일심이라는 궁극적 實體로부터 진여문과 생멸문이라는 서로 다른 두 마음이 생겨나는 것처럼 오해할 위험이 있다. 하지만 一心은 산스크리트 경전의 ‘eka-agra’를 한자로 옮긴 것으로(김성철, 2019: 124), 여기서의 agra는 마음을 뜻하는 단어인 citta 대신 사용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agra는 ‘마음이 가는 대상’을 가리키며, 따라서 ‘eka-agra’라는 개념의 원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일(一)을 숫자가 아닌 동사로 보아 一心을 ‘어떤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고 있는 마음의 작용’으로 이해해야 한다. 원효는 또 다른 저서 『金剛三昧經論』에서 一心을 ‘마음이 대상에 대해 잘 살피고 관찰하는 성품인 心一境性的 줄임말’로 풀이한 바 있다(김호귀, 2019: 64).<sup>3)</sup>

염정의 모든 법은 그 본성이 둘이 없어, 진망의 이문이 다름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일(一)이라 하며, 이 둘이 없는 곳이 모든 법 중의 참된 근원인지라 허공과 같지 아니하여 본성이 스스로 신행(영묘하게 이해함)하기 때문에 심(心)이라고 이름함을 말한 것이다.<sup>4)</sup>

원효는 위 인용문에서 心을 ‘영묘하게 이해하는 마음의 작용’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一心은 마음의 작용이나 기능을 말하는 것이지, 모든 사물의 배후에 존재하는 근원적 실체를 지칭하는 형이상학적 개념이 아니다. 원효가 一心을 항상 二門과의 연관성 속에서 파악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眞如心’, ‘生滅心’이라는 표현 대신 ‘心眞如’, ‘心生滅’이라고 지칭한 것도 마음의 실체화를 경계했기 때문이다.

一心을 단순히 ‘하나의 마음’으로 해석하는 시도는 일원적인 ‘하나의 마음’으로부터 존재론적으로 서로 다른 두 개의 마음인 二門이 생겨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一心二門’이라는 표현보다는 ‘二門一心’이라는 표현이 원효 一心 사상의 本意를 드러내는 데 적합하다. 一心二門이라고 할 경우 궁극적 실체인 一心으로부터 二門이 생겨난다거나, 一心이 二門이라는 서로 다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생각할 우려가 있다. 하지만 二門一心이라고 하면 二門을 통해 一心이 나타나고, 二門이 一心으로 통한다는 뜻을 보다 명료하게 드러낼 수 있다(정영근, 2019: 232).

불교 사상은 궁극적 실체를 상정해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따지는 형이상학적 논의가 갖는 위험성을 경고하며 一切의 형이상학적 논의를 타파하는 길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어왔다. 그러므로 원효 사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드러나고 작용하는 양상으로서의 진여문과 생멸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2. 이문일심(二門一心)의 사유 구조

원효는 마음이 나타나고 작용하는 양상을 二門一心 구조를 통해 설명한다. 一心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 모습으로 드러난다. 하나는 있는 그대로의 맑고 고요한 모습인 心眞如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움직이고 변화하는 모습인 心生滅門이다. 어딘가에 집중하고 있는 마음의 작용으로서의 一心은 이 두 가지 모습을 떠나 초월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어딘가에 묶여 막히고 집착하여 번뇌를 일으키는 마음의 작용을 곧 심생멸문이라 한다. 망념을 여의고 본래의 고요하고 깨끗한 상태를 회복한다면 이러한 ‘참 그대로의’ 마음 작용이 곧 심진여문이 되는 것이다.

원효는 一心과 二門을 개별적으로 분리된 개념으로 생각하려는 시도를 경계하였다. 궁극적인 상위의 개념인 一心으로부터 二門이라는 이원적 개념이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부분으로서의 二門을 합하면 전체로서의 一心이 되는 것도 아니다. 一心은 二門을 계기로 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二門은 각기 一心이다. 따라서 一心으로부터 二門이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二門은 一心을 나누어 본 一心의 부분이라고 볼 수도 없다. 一心이라는 마음의 세계는 본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인 심진여문과 움직이고 변화하는 모습인 심생멸문으로 나누어 묘사할 수 있을 뿐이다. 一心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二門을 통해 一心이 나타나고 二門이 각각 一心이다.

만약 (진여문과 생멸문) 이문이 서로 다른 본연의 모습은 아니라도, 이문이 서로 어긋나 통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진여문에서는 진리[理]는 포섭하지만 현상[事]은 포섭하지 못해야 할 것이고, 생멸문에서는 현상[事]만 포섭하고 진리[理]를 포섭하지 못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문은 서로 융합[融], 소통[通]하여 경계가 구분되지 않으므로 각각 진리와 현상 모든 것을 끌어안기에 기신론에서 ‘이문은 서로 분리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sup>5)</sup>

위 인용문에서 원효는 二門이 理와 事 일체의 法을 포섭하고 있다고 하며 二門이 각각 一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번뇌의 경계를 떠난 마음의 참 모습인 진여문에는 부처의 진리[理]가 온전히 드러날 뿐 아니라 온갖 망념[事] 또한 왜곡 없이 있는 그대로 비추어지므로 진여문은 理와 事를 포섭한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왜곡하여 받아들이는 마음의 작용인 생멸문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온갖 망념[事]이 나타나지만 망념 그 자체가 고정불변한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自性淸淨心을 뒤흔드는 無明의 바람을 그치게 하면 참 그대로의 진리[理]가 드러날 수 있으므로 생멸문 또한 理와 事 모두를 포섭한다.

『大乘起信論』에서는 진여문과 생멸문의 상호 의존성을 不相離의 관계로 묘사한다. 진여문과 생멸문은 서로를 향해 열려있으므로 하나[一心]로 통한다. 원효는 진여문과 생멸문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진여문(眞如門)은 모든 것에 통하는 모습[通相]이어서 통하는 모습 이외에 별개의 것들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통하는 모습에 포섭된다. 마치 진흙은 (모든) 질그릇에 (다) 통하는 면모여서 통하는 모습 이외에 다른 질그릇이 없으므로 질그릇은 다 진흙에 포섭되는 것과 같이, 진여문도 이와 같다. 생멸문(生滅門)이라는 것은, 곧 이 진여가 이로우며 이롭지 않음의 원인으로 조건과 화합하여 도리어 모든 현상을 지어내는데, 사

실 모든 현상을 지어내긴 하지만 언제나 참다운 면모[眞性]를 잃지는 않기 때문에 이 (생멸하는) 측면에서도 진여를 포섭한다. 마치 진흙의 성품이 모여 질그릇을 이루지만 항상 진흙의 성품과 특징을 잃지 않으므로 질그릇의 측면이 곧 진흙을 포섭하는 것과 같이, 생멸하는 측면도 이와 같다.<sup>6)</sup>

위 인용문에서 원효는 진여문을 진흙에, 생멸문을 진흙으로 만든 질그릇에 비유한다. 진여문은 분별과 집착이 없으므로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모든 것에 두루 통한다. 생멸문은 집착하는 대상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질그릇들이 그 생김새와 크기가 제각각이듯 생멸하는 마음의 작용은 각기 다양하다. 하지만 모든 질그릇이 진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는 서로 통한다. 진흙이 없으면 질그릇의 다양한 모양과 크기 또한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생멸문은 진여문을 조건으로 삼아 생겨난다고 한다. 진흙 역시 질그릇이 아니면 뭉쳐져 구체적인 형상으로 드러날 곳을 찾지 못한다는 점에서 진여문과 생멸문은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하는 緣起의 관계에 놓여있다.

진여문과 생멸문 二門과 무관하게 일심이 있는 것이 아니듯, 이문 또한 각각 온전한 마음을 이룬다. 원효는 ‘문(門)’이라는 표현에 담긴 ‘통하고[通] 끌어안는[攝]’의 미에 주목했다. 통하고 끌어안는다는 것은 각자의 독자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서로를 배척하지 않고 화합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진여의 세계를 그대로 비추는 마음의 작용과 망념에 물든 마음의 작용 사이에 놓인 문을 열어서 통하게 하면 진여문과 생멸문은 하나의 완전한 전체로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이 ‘門’을 여는 방법은 오직 하나이다. 門이라는 장애물은 결국 우리가 만들어낸 虛像이며, 본래 門이라는 경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문은 항상 서로를 향해 열려있으므로, 깨닫기만 하면 두 문은 하나의 길, 一心으로 통한다. 이렇듯 원효는 一心을 기점으로 二門이 펼쳐지고 포섭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원효의 一心二門 사상은 眞과 俗을 서로 대별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진에서 속으로, 속에서 진으로 자재함이 圓融無碍하므로 진과 속을 함께 긍정하는 경지로 나아간다. 또한 세속의 세계에서 진여의 세계를 향하는 부단한 수양을 거쳐 시각이 본각과 일치하는 경지에 도달함은 곧 다시 중생의 세계로 내려와 慈悲를 실천하는 不住涅槃의 경지와 원융무애함을 의미한다. 즉, 부처의 깨달음을 구하는 자는 반드시 중생 구제에도 힘써야 한다는 원효 사상의 一心二門 사상에 그대로 담겨있는 것이다.

### 3. 일심(一心)의 회복으로서의 일심지원(一心之源)

원효는 마음이 작동하는 두 모습 중 특히 心生滅門에 주목했다. 생멸문에는 根本無明에熏習되어 온갖 生滅현상을 일으키는 ‘不覺’과 本覺이 無明을熏習하는 힘에 의지해 미혹된 마음이 점차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 本覺과 일치하게 되는 ‘始覺’의 가능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本覺은 중생의 마음은 부처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여 깨달음 그 자체를 보다 근원적으로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둔 표현이라면, 始覺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미혹된 마음이 깨달음으로 점차 전환되는 과정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不覺의 상태에 놓여있다 하더라도 衆生心에는 本覺이 자리잡고 있으며 始覺을 통해 본래적 완전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신념은 인간 존재의 한계를 극복하는 수행의 계기를 제공한다.

『大乘起信論疏』에서 원효는 이러한 계기를 ‘如來藏’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한다.

(『대승기신론』에서) 처음에 “일심법에 의하여 두 가지 문이 있다”라고 한 것은, 『능가경』에서 “적멸이라는 것은 일심이라 이름하며, 일심이란 여래장이라 이름한다.”라고 말한 것과 같다. 심진여문은 『능가경』에서 “적멸한 것을 일심이라 한다”는 것을 해석한 것이고 심생멸문은 『능가경』에서 “일심이란 여래장을 말한다”고 한 것을 해석한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법은 본래 생겨남도, 사라짐도 없이 고요하여 오직 일심뿐인데, 이러한 것을 심진여문이라고 말한 것이다. 또한 일심 그 자체는 본래 깨달음에 머물지만 무명에 따라 움직여서 생겨남과 사라짐이라는 현상을 일으킨다. 따라서 이 생멸문에서는 여래의 면모가 감춰져 나타나지 않아 여래장이라 말한 것이다.<sup>7)</sup>

如來藏이란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다. 藏은 본래 태아를 의미하며, 여래장은 중생이 여래의 태아와 같다고 하는 뜻을 담고 있다. 여래의 태아는 자라서 장차 여래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여래장은 ‘여래가 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즉 여래장 사상은 중생과 부처의 본질적 동질성에 주목한다. 부처의 눈으로 보면 중생 속에 부처가 있어 중생이 부처와 다르지 않다.

如來藏은 부처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깨달음을 향해 수행해 나가는 동력이 된다. 하지만 ‘如來藏’이라는 표현에는 중생은 본질적으로 부처와 다르지 않다는 않다는 인식과 함께 현실적으로는 아직 부처가 되지 못한 상태로서 不覺과 本覺 사이에 여전히 거리가 존재한다는 의미도 담겨있다. 따라서 妄念을 여의고 미혹함에서 깨달음으로 다가가는 부단

한 과정[始覺]이 요청되며, 이는 無明의 熏習을 털어내어 一心을 회복하는 길과 통한다.

원효는 始覺과 本覺이 하나로 통하는 경지를 설명하기 위해 ‘一心之源’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진여문과 생멸문을 두루 원융하게 포섭하는 一心에 또 다시 그 근원을 설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대승기신론』에서의 一心보다 『금강삼매경론』에서의 ‘一心之源’이 더욱 상위의 개념, 근본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할 여지를 남긴다.<sup>8)</sup> 그러나 一心之源을 이렇게 해석하는 방식은 再考를 요한다.

一心之源은 『大乘起信論疏』의 표종체문에 등장한다.<sup>9)</sup>

*도를 배우는 사람으로 하여금 온갖 경계를 길이 쉬어서 드디어 일심의 근원에 돌아가게 하려는 것이다.<sup>10)</sup>*

위 인용문은 마명이 대승기신론을 지은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이다. 원효는 無明의 헛된 바람에 본각이 가려진 상태로 살아가는 중생들을 불쌍히 여겨 자신의 마음이 곧 여래의 마음임을, 즉 스스로에게 본래 청정한 마음이 온전히 갖추어져 있음을 깨닫게 하려는 목적에서 논이 찬술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즉, 미혹한 범부들이 二門一心의 도리를 깨달아 망념을 제거하기만 하면 本覺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一心之源은 무명의 습기를 걷어내고 비로소 본래의 참모습을 마주하는 경지이며, 始覺이 本覺과 일치함을 발견하는 경지이자 진여문과 생멸문이 원융하여 하나의 마음으로 통하는 경지이다. 따라서 일심지원은 일심을 초월한 상위의 경지로 볼 수는 없다. 떠난 곳과 도달한 곳이 서로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금강삼매경론』에서의 一心之源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일체중생은 본래 하나의 깨달음임을 설명하고자 한다. 단지 무명으로 말미암아 환상을 따라 유전할 뿐이므로 모두 여래의 일미의 설법을 좇아 마침내 모두 일심의 근원으로 돌아가지 않음이 없다.<sup>11)</sup>*

위 구절은 無相法品에 대한 설명 부분에 등장한다. 부처의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은 일체 중생이 모두 본래 갖추고 있는 일심과 본각을 다시 환하게 드러내도록 이끌어야 함을 촉구하는 부분이다. 내 마음이 곧 부처이므로, 깨달음은 마음에 대한 참다운 인식과 다르

지 않다. 마음에 대한 참다운 인식은 부정적 요소를 고통스럽게 제거함으로써가 아니라 망념과 미혹이 비실재적이고 우연적임, 즉空함을 깨달음으로써 가능하다. 본래의 청정한 부처로서의 마음과 미혹된 중생으로서의 마음은 둘이 아니다. 둘은 원융하나 하나를 고집하지 않기에 둘이 될 수 있다. 원효에게 일심의 근원이란 始覺과 本覺이 일치함을 체득하고, 시각과 본각의 일치가 곧 나의 마음임을 철저히 깨우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一心을 벗어난 一心之源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一心과 一心之源의 관계는 제8 아뢰야식과 제9 암마라식의 관계와 유사하다. ‘일심지 원으로 돌아간다’는 표현과 유사하게 『금강삼매경론』에는 ‘암마라식에 들다’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본래 걱정이 없음을 깨달아 열반의 일어남도 떠나는) 이러한 경지에 머물면 마음에 집착이 없고 출입이 없어 암마라식에 들어간다.<sup>12)</sup>*

이에 대한 원효의 해설은 다음과 같다.

*암마라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일심의 자체는 양변을 떠나 있는데 그 심원에 돌아가기 때문에 들어간다고 하였다.<sup>13)</sup>*

암마라식에 ‘들어간다’는 표현 때문에 아뢰야식을 초월한 그 너머의 경지로서의 암마라식이 존재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원효 또한 이를 의식한 듯 무주보살과 부처의 대화를 덧붙여 상술한다. 무주보살은 부처에게 ‘암마라식이라 함은 들어간 경지가 있다는 것인데, 이는 곧 얻음이 있다는 뜻이 아닌지’ 묻는다. 즉 아뢰야식보다 상위의 차원으로서의 암마라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부처는 이에 미혹한 아들이 금전을 갖고 있는 줄 모르고 떠돌다 ‘너는 이미 수중에 금전을 가지고 있다’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마침내 금전을 발견하게 된다는 비유를 들어 ‘암마라에 들어간다’라는 말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였다.

본래 떠나 있지 않았으므로 지금 들어간 것도 아니다. 옛적부터 미혹하다고 해서 없던 것도 아니고, 지금 깨우쳤다고 해서 들어간 것도 아니다. 本覺도 본래적인 것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 있던 적이 없다. 그러므로 새삼 들어간다고 할 것도 없다. 즉 미혹을 걷어내

어 내 안에 본래 청정한 진여의 불성이 갖추어져 있었음을 돌이켜 깨닫는 것이 ‘암마라식에 들어간다’ 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바이다. 일심지원과 마찬가지로 이는 일심을 초월한 궁극적인 경지에 도달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일심을 더욱 투철하게 깨우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sup>14)</sup>

나아가 원효가 깨달음의 궁극적 경지로 제시한 ‘일심(一心)을 투철하게 깨닫는 경지[一心之源]’는 ‘始覺과 本覺이 하나가 된 一覺의 경지[一味觀行]’와 통한다. 이러한 경지는 곧 眞俗不二를 깨닫고 실천하는 것, 즉 청정한 진여의 마음을 되찾는 자리행(自利行)과 중생 구제에 힘쓰는 이타행(利他行)이 원만히 합일된 상태를 가리킨다. 깨달음을 얻은 이가 깨친 자리에서 홀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중생의 곁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타행, 즉 부주열반 사상이야말로 원효 사상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세상과 중생이 곧 本覺이다. 진여·생멸 二門과 本覺·不覺 二覺이 둘이 아니듯 깨달음을 얻은 사람과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한 중생들은 별개의 다른 존재가 아니며, 모두 佛性を 지닌 존재라는 점에서 하나로 통한다. 따라서 원효가 求道の 본령으로 삼은 ‘歸一心源, 饒益衆生’이라는 말에 원효 사상의 최종적 지향점이 압축되어 있는 것이다.

깨달은 자가 머무는 진리의 세계와 미혹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중생이 머무는 속세는 다르지 않다. 마치 일심의 진여문과 생멸문이 진흙과 질그릇, 또는 바다와 파도처럼 서로가 서로를 떠날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眞과 俗 역시 서로를 포섭하고 있다. 이러한 眞俗不二의 깨달음에 도달하면 자연스럽게 고통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중생들을 향해 손을 내밀게 된다. 그리고 중생들을 향해 손을 내밀 때 비로소 自他不二의 경지에 이르러 수행이 완성된다.

### Ⅲ. 도덕과 교과서에 담긴 원효의 일심 사상 서술 검토

#### 1. 원효의 일심 사상 서술에 대한 검토 기준

원효는 세간[俗]과 출세간[眞]이 둘이 아님을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천적으로 증명하는데 주력했다. 그는 세계의 실상을 관찰하여 있는 그대로의 것으로 알아차리고, 헛된 망념

이 일어나지 않는 온전한 마음을 깨닫고 유지하는 수행을 통해 말과 뜻으로부터 파생된 분별, 집착, 망상을 깨뜨리고자 했다. 원효의 一心사상은 이러한 틀 자체를 해체함으로써 세계와 올바르게 관계 맺을 수 있게 하는 데 목표를 둔다. 이 지평에 이르면 나와 타인, 안과 밖, 유와 무의 경계가 해체되어 모든 중생을 향해 열리고, 이들을 꺼안는 자발적 이타심이 발생하며 중생 역시 진리의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원효의 一心 사상의 지향점은 결국 眞俗不二의 圓融佛敎를 천명하는 데 있다. 부처의 가르침을 구하는 이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경지는 중생들 속에 있어도 마음이 항상 禪定에 있고 속세에 머물더라도 집착이 없는, 즉 현실에서 중생구제에 힘쓰면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일으키되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경지이다.

원효의 사상은 그가 특별한 관심을 쏟았던 『대승기신론』의 핵심 개념인 一心과 二門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어떤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고 있는 마음의 작용’인 一心은 있는 그대로의 본래적인 측면인 心眞如門과 無明에 의해 움직이고 변화하는 측면인 心生滅門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無明에 의해 오염된 마음의 상태와 본래 청정함을 머금고 있는 상태는 둘이 아니므로 二門은 一心으로 통한다. 원효는 二門一心의 구조로 마음이 미혹되고 정화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大乘에 대한 믿음을 일으킴으로써 망념을 버리고 깨달음의 지혜를 체득하는 길을 열고자 했다.

원효의 一心을 궁극적 존재나 근원적 실체로 상정하고 一心으로부터 진여문과 생멸문의 二門이 발생한다고 보는 관점은 불교 사상가들이 그토록 경계한 ‘마음의 실체화’ 문제를 야기한다. 원효는 二門과 무관하게 一心이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또한 二門이 각기 一心의 한 부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진여문과 생멸문은 각각 모든 法을 총괄하여 포섭하고 있으며, 二門이 하나[一心]로 통할 때 一心의 근원[一心之源]에 도달하게 된다. 一心을 투철하게 깨우친 이 경지에서 眞과 俗, 自利行과 利他行은 원만하게 화합하며, 이는 원효 一心 사상의 귀착처라 할 수 있다.

즉 원효 일심 사상의 궁극적 지향점은 ‘중생구제’에 있으며, 이문과 일심은 서로를 포섭하는 관계에 놓여있다. 원효는 이문일심의 연기적 관계를 강조함으로써 마음의 실체화 문제를 경계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2015 교육과정에 담긴 원효의 일심 사상은 이하 세 가지 질문을 토대로 반성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첫째, 일심을 실체로서 오인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는가?

둘째, 이문일심의 관계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는가?

셋째, 중생 구제[歸一心源 饒益衆生]라는 원효 사상의 궁극적인 목표를 담아내고 있는가?

## 2. 원효의 일심 사상에 대한 서술 검토 내용

기본적으로 도덕과 교과서는 도덕과 교육과정, 교과서 편찬상의 유의점, 교과서 검정 기준, 도덕과 교과서 집필 기준을 토대로 작성된다. 그 중에서도 교과서 집필 기준은 교과 내용 다양성을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내용요소에 대한 해석의 범위, 유의해야 할 진술 방식, 교과서 내용에 반영되어야 할 핵심 개념 등을 제공하여보다 공정하고 깊이 있는 교과서를 집필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그러므로 교과서의 서술내용을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해서는 도덕과 교육과정, 편찬상의 유의점, 검정 기준, 집필 기준에 대한 검토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고등학교 도덕과 교과서 10종의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되 교육과정, 집필 기준 등을 함께 참고할 것이다.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에 따르면 한국 불교 서술의 중점은 ‘분쟁과 화합’이다. 한국 불교 사상의 특징을 원효의 화쟁과 교선(선교)통합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5종의 『윤리와 사상』 교과서는 원효의 사상 중에서도 ‘화쟁’에 보다 중점이 맞춰져 서술되고 있다.

〈표 1〉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윤리와 사상』의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일반화된 지식	내용요소	기능
한국 불교는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깨달음을 기반으로 서로 대립하는 다양한 관점들의 조화를 추구하였고, 선교 통합의 방법을 통해 소통과 실천성을 더욱 강화하였다.	5. 분쟁과 화합 : 가장 바람직한 분쟁 해결 방식은 어떠한 것일까? ① 한국 불교의 전통 : 화쟁 사상과 선교통합 ② 한국불교의 윤리적 특징	수양(수행) 방법의 이해 및 실천하기
성취기준	[12윤사02-05] 한국불교의 주요 사상들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한국불교의 윤리적 특징과 현대적 의의를 설명할 수 있다.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집필 기준에 따르면 단순 나열식의 설명과 암기를 지양하고 있으며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정설을 중심으로 해석과 내용을 선정하

여 학생의 수준에 적합하게 서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고전을 직접 인용할 경우 원문과 원저자의 뜻을 왜곡함 없이 현대어로 번역하여 제시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한국 불교에 대해서는 “한국불교사상(원효, 지눌, 의천)의 특징을 기술하고, 현대 한국 사회의 윤리 문제 해결에 어떤 시사점을 제공하는지 기술한다(교육부, 2015b: 61-63).” 라고 집필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에 담긴 원효 사상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윤리와 사상』에 담긴 원효 사상

출판사	내용
교학사 (2019)	원효의 핵심 사상은 화쟁 일체유심조 화쟁 사상 : 여러 주장을 하나로 조화, 중관과 유식의 조화, 원융회통 일심 사상 : 화쟁의 근거, 원융회통과 화쟁의 주체, 자정청정심 무애가와 무애무를 통한 불교의 대중화
미래엔 (2019)	일심 사상 : 일체의 대립을 초월하는 것, 수많은 이론은 일심으로 종합되는 것 원융회통 사상, 화쟁 사상 : 모든 종파와 사상을 분리하여 고집하지 말고, 보다 높은 차원에서 하나로 종합_화합을 중시하는 한국 불교의 전통 수립의 계기 실천적 지향 : 무애_실천과 수행에는 일정한 형식이나 방법이 없음 중생을 구제하고자 한 자비의 실천_ 불교 대중화에 기여
비상교육 (2019)	화쟁 사상 : 다툼과 대립에서 벗어나 화해하고 화합하는 것, 원융 회통의 논리 일심 사상 : 화쟁 사상의 근거임, 일체유심조, 이문일심에 대한 구체적 설명 일심은 깨끗하다는 상대적인 구분을 벗어난 절대적인 ‘어떤 것’ 무애행 : 정해진 틀이나 형식에서 벗어난 수행_불교의 대중화
씨마스 (2019)	원효의 핵심 사상은 일심과 화쟁 일심 사상 : 일심은 마음이 모든 것의 근거라는 것, 깨달음은 마음의 문제. 본질 은 부처의 마음과 같으므로 화쟁의 근거 화쟁 사상 : 일심으로 돌아감이 화쟁의 완성, 화쟁은 언어로 표현된 이론 다툼을 화해시키는 것. 언어에 대한 집착 버리기, 원융회통의 논리 정토 신앙 :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통한 극락왕생에 대한 믿음, 불교 대중화에 기여
천재교육 (2019)	화쟁 : 교편에 대한 비판 의식, 종파 사이의 다툼을 화해시키는 것 일심 사상 : 진여와 생멸의 두 측면, 화쟁 사상의 근거 무애행 : 중생 구제를 위한 깨달음인 보살정신의 실천, 불교의 대중화

수능특강 (2020)	<p>종합적인 불교 이론의 전개</p> <p>일심 사상 : 이원적 대립을 초월한 절대불이. 인간답게 사는 길은 일심으로 돌아가는 것</p> <p>화쟁 사상 : 대립하는 여러 불교 종파의 주장들을 높은 차원에서 하나로 아우르려는 사상</p>
----------------	---

〈표 3〉 『생활과 윤리』에 담긴 원효 사상

출판사	내용
금성출판사 (2018: 190)	화쟁 사상 : 대립하거나 갈등하는 불교 이론들에 대해서 각 종파의 서로 다른 이론을 인정하면서도 더 높은 차원의 깨달음을 강조하였다. 원효는 종파들 간의 이해와 진리를 위해서 소통하는 자세를 중시하였다.
미래엔 (2018: 190)	화쟁 사상 : 모든 종파와 사상을 분리시켜 고집하지 말고,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로 종합해야 한다.
비상교육 (2018: 179)	화쟁 사상 : 서로 다른 쟁론을 화회하고 이문을 묘합하여 하나로 조화시키는 것이다. 원래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석가모니의 깨우침을 원천으로 한다. 일체의 모든 이론도 결국 그 깨우침의 바탕인 일심일 뿐이다. 오직 일심의 원천에서 모든 대립과 갈등은 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일심을 바탕으로 한 화쟁은 모든 이론과 종파의 특수성과 상대적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면서 전체로서 조화를 살리는 원용이다.
지학사 (2018: 185)	화쟁 사상 : 다양한 이론이 갈등하는 것은 불교의 진리가 하나의 마음과 하나의 지혜를 표현한 것임을 모르고, 자기 이론만 옳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편견과 집착을 넘어 소통하면서 대립을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진리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천재교육 (2018: 190)	화쟁 사상 : 여러 교설은 모두 부처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것이 지향하는 바는 모두 깨달음이라는 점에서 한마음[一心]이다. 이처럼 원효는 특수하고 상대적인 각자의 입장에서 벗어나 대승적으로 융합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수능특강 (2020: 164)	화쟁 사상 : 모든 종파와 사상을 분리시켜 고집하지 말고,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로 종합해야 한다.

### 3. 원효의 일심 사상 서술 검토 결과

앞서 도출한 검토 기준을 토대로 일심 사상에 관한 교과서 서술내용을 비판적으로 검

토해보도록 하겠다. 첫째, 일심을 실체로서 오인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는가? 기본적으로 불교는 어떤 절대적인 실체나 고정불변하는 진리 자체를 긍정하지 않는다. 무엇인가 영원히 실존한다고 믿는 것은 연기설에 반하는 해석이며, 절대적인 실체의 긍정은 분별과 집착을 낳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효의 일심 또한 어딘가에 존재하는 절대불변의 진리처럼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5종의 교과서 모두 ‘일심’을 절대적 실체나 어딘가에 실재하는 초월적인 진리로 오해할 것을 경계하지 못했다. 오히려 일심이 원효가 지향하는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존재한다.

*일심은 곧 모든 불벌로부터 떠나 있는 본래 맑고 깨끗한 마음[자성청정심]이다(황인표 외 9인, 2019: 68).*

*마음(일심)이란 깨끗하다는 상대적인 구분을 벗어난 절대적인 ‘어떤 것’이다. 이것은 언어로써 규정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는 억지로 이름을 붙여 ‘일심’이라 한다(류지한 외 8인, 2019: 65).*

*일심의 —은 양적인 개념이 아니라 조화로운 전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일심의 입장에서 보면 연기법에 따라 변화하는 현실과 변화하지 않는 진리는 실상 다르지 않으며,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 있을 뿐이다(정창우 외 9인, 2019: 70).*

*중생이 본래의 마음(一心)으로 돌아가 부처가 된다(변순용 외 10인, 2019: 63).*

*일심이란 마음이 모든 것의 근거이고 바탕이라는 뜻으로,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내고 마음에서 모든 것이 비롯한다는 사상이다(박친구 외 5인, 2019: 70).*

앞서 원효 일심 사상의 이해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일심을 모든 사물의 배후에 존재하는 근원적 실체를 지칭하는 형이상학적 개념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교과서에서 표현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 원효가 일심을 항상 이문과의 연관성 속에서 파악해 왔듯이 일심을 단순히 ‘하나의 마음’으로 해석 혹은 표현할 것이 아니라 ‘어떤(하나의) 대상에 집중하고 있는 마음의 작용’과 같이 표현하는 것이다. 또한 ‘일심’ 보다는 ‘이문일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이문일심의 관계 속에서 일심을 다룬다면 일심의 실체화를 경계하면서도 동시에 이문일심의 관계를 교과서에 자연스럽게 담아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문일심의 관계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는가? 교과서 내용 적정성의 문제를 고려하면 이문일심의 관계에 관한 설명이 상세히 본문 상에 포함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문을 설명함에 있어 일심은 이문과 무관하게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또한 이문이 각기 일심의 한 부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강조점은 교과서 본문 상에 포함되지는 않더라도 학자의 사상을 온전히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교과서 상의 날개 혹은 읽기 자료에 첨부될 필요가 있다. 교과서 5종 중 비상교육과 천재교육이 이문일심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긴 하나, 이문일심의 연기적 관계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 나머지 교과서들은 화쟁의 근거로서의 일심을 간략히 설명하고 있을 뿐 이문 혹은 이문일심의 관계에 관한 내용은 다루고 있지 않다.

*하나의 마음을 해맑고 깨끗한 모습인 진여문과 때묻고 물든 모습인 생멸문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한다. 심진여문은 중생이 본래 갖추고 있는 분별과 대립이 소멸된 청정한 선품의 방면이고 심생멸문은 중생이 본래 갖추고 있는 청정한 성품이 분별과 대립을 일으키는 방면이다(류지한 외 8인, 2019: 65).*

*일심 사상이란 중생의 마음에 청정한 본래의 마음인 진여와 선악이 뒤섞여 있는 현실의 마음인 생멸의 두 측면이 있지만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변순용 외, 2019: 63).*

원효는 궁극적인 상위의 개념인 일심으로부터 이문이라는 이원적 개념이 생겨나는 것이라는 이해를 경계하며, 일심을 본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인 심진여문과 움직이고 변화하는 모습인 심생멸문으로 나누어 묘사하였다. 일심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문을 통해 일심이 나타나고 이문이 각각 일심인 것이다. 또한 일심이문의 관계를 설명함에 있어 추가적으로 ‘문(門)’이라는 표현에 담긴 ‘통하고[通] 끌어안는[攝]’다는 의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통하고 끌어안는다는 것은 각자의 독자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서로를 배척하지 않고 화합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는 망념을 벗어던져 진여의 세계와 생멸의 세계 사이에 본래 경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깨달으면 진과 속을 함께 긍정하는 경지로 나아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교과서에서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화쟁의 근거로서의 일심을 보다 유기적으로 설명해주며 나아가 원효 사상의 궁극적 경지인 부주열반, 중생구제 정신으로 일심 사상이 연결될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해준다.

셋째, 중생 구제[歸一心源 饒益衆生]라는 원효 사상의 궁극적인 목표를 담아내고 있는가? 대부분의 교과서는 원효 사상의 궁극적 목표를 선명하게 담아내고 있지 못하다. ‘회합’이라는 단원의 주제에 맞춰 여러 종파 및 이론 간의 통합을 원효 사상의 핵심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교과서는 중생의 구제라는 목표에 대한 언급보다는 무애행이나 정토 신앙을 바탕으로 귀족 중심의 불교를 대중화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미래엔과 천재교육에서 간략하게 중생 구제라는 원효 사상의 정신을 언급하고 있다.

“일심으로 돌아가 모든 생명을 이롭게 한다.” 라는 깨달음을 통해 모든 중생을 구제 하고자 하였던 자비의 실천 이었다(정창우 외 9인, 2019: 71).

원효는 중생 구제를 위해 깨달음을 추구하는 보살의 정신에 따라 출가 수행자의 계 율에 구속되지 않고 무애행을 실천하였다(변순용 외10인, 2019: 64).

원효가 깨달음의 궁극적 경지로 제시한 ‘일심을 투철하게 깨닫는 경지[一心之源]’ 는 ‘시각과 본각이 하나가 된 일각의 경지[一味觀行]’ 와 통한다. 이문일심의 맥락에서 이는 진과 속을 함께 긍정하는 경지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지는 곧 진속불 이를 깨닫고 실천하는 것, 즉 청정한 진여의 마음을 되찾는 자리행과 중생 구제에 힘쓰 는 이타행이 원만히 합일된 상태를 가리킨다. 깨달음을 얻은 이가 깨친 자리에서 홀로 안주하는 것이 원효 사상의 궁극적 경지가 아니다.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중생의 곁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타행, 즉 부주열반 사상이야말로 원효 사상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를 교과서에서 최종적으로 다루어줄 필요가 있다.

검토 결과를 종합하면 ‘일심이문 - (화쟁) - 중생구제’ 의 구조로 교과서가 서술된다 면 기존 교과서의 ‘일심 - 화쟁 - 무애행 혹은 중생구제’ 의 구조보다 유기적으로 원효 사상을 설명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먼저, 일심을 설명하는 표현을 ‘어떤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고 있는 마음의 작용’ 과 같이 변경하여 일심의 실체화를 경계하여 원효 일심 사상을 보다 명확히 전달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일심이문 관계에 대한 설명을 지금 보다 상세히 추가한다면 일심의 실체화를 경계하면서도 일심이 어떻게 화쟁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보다 논리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심이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이후 원효 사상의 궁극적 경지인 자타불이, 부주열반, 중생구제를 다루어 준다면 유기적

인 흐름 속에서 원효 사상의 핵심을 교과서에 담아낼 수 있을 것이다.

####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먼저 불교윤리와 관련한 도덕과 교육의 선행 연구를 파악하고, 문제의식을 이어 받아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윤리와 사상』 교과서,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 담긴 원효의 일심 사상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교과서 내용을 검토하기에 앞서 원효의 일심 사상에 관한 이론적 탐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교과서를 검토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원효의 일심 사상과 관련하여 교과서 상의 서술이 일심을 실제로 오인하지 않도록 서술하고 있는지, 이문일심의 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있는지, 중생 구제[歸一心源 饒益衆生]라는 사상적 목표를 담아내고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교과서는 일심 사상, 화쟁 사상, 무애행을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었으며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내용 체계와 집필 기준을 고려하여 주로 화쟁 사상에 초점이 맞추어 서술되어 있었다. 이로 인하여 일심 사상의 궁극적 지향점인 중생 구제를 다루고 있는 교과서는 미래엔과 천재교육뿐이었으며, 이문일심에 대한 언급은 일부 있었으나 이문일심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설명 및 일심에 대한 실체론적 사유를 경계한 교과서 또한 부재하였다.

물론 도덕과 교과서는 도덕과 교육과정, 교과서 편찬상의 유의점, 교과서 검정 기준, 도덕과 교과서 집필 기준을 토대로 작성되기 때문에 내용의 선정 및 서술에 있어 한계가 존재한다. 무조건적으로 그 내용이 부재하다고 해서 비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공식적인 교육 자료인 교과서에서 만큼은 원문과 원저자의 뜻을 왜곡하지 않고 그 학자가 전하고자 했던 사상의 핵심을 오류 없이 전달해야 한다. 원효가 자신의 사상을 통해 무엇을 전달하고자 했는지 고민하고 그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본의를 해치지 않으면서 내용의 선정과 압축적인 서술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았을 때 지금 교과서의 일심 사상은 앞서 검토한 내용과 같이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명확히 존재한다.

교과서 서술내용을 보완하는 방식은 다양하겠지만 그 중 하나는 집필 기준을 보완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의 교과서 집필 기준에 따르면 집필 기준의 목표는 단순 나열식의 설명과 암기를 경계하며, 여러 사상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반성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을 유의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15b: 61). 이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과연 원효 사상과 관련한 교과서 서술방식이 단순 나열식의 설명과 암기를 경계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또한 한국 불교와 관련한 집필 기준은 “한국불교사상(원효, 의천, 지눌)의 특징을 기술하고(교육부, 2015b: 63)”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는 유학이나 서양 윤리의 집필 기준과 비교해 보았을 때 해석의 여지가 많은 집필 기준이다. 타 사상에 비해 한국 불교의 서술이 엄밀하고 엄정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집필진의 다양한 해석의 반영이라는 점에서 보았을 때 문제가 없는 기준일 수도 있겠으나 서양윤리 집필 기준<sup>15)</sup>이 훨씬 엄격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동양 윤리 혹은 한국 윤리의 기준도 엄격하고 세밀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일심에 대한 실제적 사유의 경계, 이문일심·부주열반과 같은 원효의 핵심 사상의 필수 포함과 같은 기준들이 포함된다면 보다 정확하게 원효 사상이 교과서에 서술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를 포함하여 앞으로 도덕과 교과내용학의 영역에서 불교 윤리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지금보다 더 정확하고 체계적인 교육내용의 선정 및 서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 참고문헌

『大乘起信論』

『大乘起信論疏』

『大乘起信論別記』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한국사상연구소(2002), 『자료와 해설 한국의 철학사상』, 서울 : 예문서원.

고영섭(2002), 『한국의 사상가 10人 : 원효』, 서울: 예문서원.

\_\_\_\_\_ (2016), 『분향 원효의 생애와 사상』, 서울: 운주사.

\_\_\_\_\_ (2018), “일심지원 혹은 일심이란 무엇인가”, 『불교철학』, 2. 95-132.

교육부(2015a), 『도덕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6].

\_\_\_\_\_ (2015b),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개발을 위한 집필기준 [국어, 도덕, 경제, 역사].

김국현 외 9인(2018),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서울: 비상교육.

김상현(2009), 특집논문 : “원효(元曉)의 무애행(無碍行)과 화쟁사상(和諍思想)의 현대적 의미”, 『전자불전』, 11(0), 1-26.

김성철(2019), “원효 『기신론』 주석서에 나타난 『능가경』 인용 양상”, 『불교학리뷰』, 25, 105-141.

김영일(2019), “효의 화쟁방법 검토-최근 3인의 연구를 중심으로”, 『불교학연구』, 60, 171-197.

김태오, 김병희(2004), 원효 무애행의 교육적 함의. 『동서철학연구』, 34(0), 253-275.

김호귀(2019), 『금강삼매경론』,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김형중(2007), “초중등학교 도덕·윤리·국사·철학 교과서에 나타난 불교 관련 내용의 오류”, 『교육연구』, 42, 97-120.

류지한 외 8인(2019),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서울: 비상교육.

민용성(2011), “교과 교육내용의 적합성 준거 개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1(3), 19-41.

박찬구 외 5인(2019),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서울: 씨마스.

- 박태원(2019a), “원효의 일심一心 - 본체론적 해석에 대한 비판과 대안 -”, 『철학논총』, 98, 27-54.
- 박태원(2019b), “원효의 일심과 깨달음의 의미”, 『불교철학』, 4, 5~76.
- \_\_\_\_\_ (2017), 『원효의 화쟁철학』, 서울: 세창출판사.
- \_\_\_\_\_ (2013), 주제4 : “화쟁사상을 둘러싼 쟁점 검토”, 『한국불교사연구』, 2(0), 125-170.
- \_\_\_\_\_ (2012), “원효의 선(禪)사상 - 『금강삼매경론』을 중심으로”, 『철학논총』, 68(2), 5-41.
- \_\_\_\_\_ (2011), 『원효사상연구』, 울산: UUP.
- \_\_\_\_\_ (2004), “원효 화쟁사상의 보편 원리”, 『철학논총』, 38, 23-53.
- 박학래(2011),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의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2009 개정 교육과정 중 ‘한국의 윤리 사상’을 중심으로”, 『윤리연구』, 83, 195-219.
- 배문규(2006), “고등학교 교과서 『윤리와 사상』을 통해서 본 한국윤리의 개선방안 연구”, 『윤리교육연구』, 10, 43-66.
- 변순용 외 10인(2019),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서울: 천재교과서.
- \_\_\_\_\_ (2018),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서울: 천재교과서.
- 서정형(2006), 원효 『금강삼매경론』, 서울대철학사상연구소.
- 신희정(2019),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윤리교과서에 나타난 불교 서술 체재 및 내용 분석”, 『도덕윤리과교육』, 63, 135-164.
- 윤종갑(2005), “원효 사상의 철학적 체계”, 『密教學報』, 7, 297-324.
- 은정희, 송진현(2002), 『원효의 금강삼매경론』, 서울: 일지사.
- 은정희(2017), 『대승기신론소기회본』,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 \_\_\_\_\_ (2008), 『은정희 교수의 대승기신론 강의』, 서울: 예문서원.
- 이종철(2001), “선종 전래 이전의 신라의 선 - 『금강삼매경론』에 보이는 원효의 선학 -”, 『禪學』, 2, 25-41.
- 장승희(2016),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의 불교 사상 분석 -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 『윤리교육연구』, 41, 79-101.

- 정영근(1999), “원효의 사상과 실천의 통일적 이해”, 『哲學研究』, 47, 161-180.
- \_\_\_\_\_ (2019), 『진과 속의 눈으로 불교를 보다』,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19.
- 정창우 외 9인(2019),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서울: 미래엔.
- \_\_\_\_\_ 외 6인(2018),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서울: 미래엔.
- 정탁준 외 7인(2018),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서울: 지학사.
- 정천구(2012), “제1장 원효의 『금강삼매경론』 연구”, 『민족사상』, 6(1), 9-47.
-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불광연구원 공동학술세미나(2014), “초·중·고 윤리교과서의 불교서술 체재와 내용”, 1-159.
- 차우규 외 5인(2018),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서울: 금성출판사.
- 최유진(2015), “원효의 화쟁과 사회통합”,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 21(3), 89-106.
- 최지승(2006), “元曉의 一味觀行”, 『철학논총』, 3(45), 371-390.
- 홍현주(2017), “윤리와 사상 교과서의 초기불교 사상 분석”, 『도덕윤리과교육』, 57, 103-130.
- 황인표 외 9인(2019),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서울: 교학사.
- EBS(2020), 2021학년도 수능특강 생활과 윤리.
- EBS(2020), 2021학년도 수능특강 윤리와 사상.

## Abstract

### Reviewing the description of Wonhyo's One Mind in High school Moral Textbooks

- Focusing on 2015 Curriculum -

Lee, Woonju & Kim, Jinha

What is the meaning and significance of Wonhyo's work, and does high school moral textbooks capture the essence of Wonhyo's ideas? Wonhyo proved that the world of Buddha and the world of sattva are no different, using the concept of 'One mind(一心)' as the core of his ideas in 『Awakening of Mahayana Faith(大乘起信論)』. The practical goal of Wonhyo's idea of returning to the source of One Mind and saving the sattva life is melted into the concept of one mind. Therefore, textbooks should be described based on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Wonhyo's philosophy of One Mind so that students can understand the true meaning of Wonhyo's ideas. However, the descriptions of Wonhyo's One Mind in high school moral textbooks under the 2015 curriculum have problems such as failing to properly capture the ultimate goal of the original idea of "saving the sattva life", failing to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aspects' and 'One mind' and raise the possibility of "substantialization of mind" which runs counter to the purpose of Wonhyo's ideas as well as Buddhist ideas.

Key Words: Wonhyo's Thoughts, One Mind Thoughts, Korean Buddhism, Moral Textbooks

\* 논문 접수 2021년 7월 17일 / 수정본 접수 8월 24일 / 게재 승인 8월 27일

1) 교육내용의 적합성 논의에서 '학문' 을 대상으로 적합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경우 해당

학문의 핵심 개념을 반영 여부, 현재 학문 발달의 반영여부, 해당 학문의 올바른 탐구 방법 취급 여부 등을 묻고 있다고 볼 수 있다(민용성, 2011: 23).

- 2) 『大乘起信論疏』, “立一心法者. 遣彼初疑. 明大乘法唯有一心. 一心之外更無別法. 但有無明迷自一心. 起諸波浪流轉六道. 雖起六道之浪. 不出一心之海. 良由一心動作六道. 故得發弘濟之願. 六道不出一心. 故能起同體大悲. 如是遣疑. 得發大心也.”, 한국불교전서 1-736하.
- 3) 『金剛三昧經論』, “六名心一境性. 令心專一於境之性. 故名心一境性. 舊云一心是略故也.”, 한국불교전서 1-606하.
- 4) 『大乘起信論疏』, “謂染淨諸法其性無二. 眞妄二門不得有異. 故名爲一. 此無二處諸法中實. 不同虛空. 性自神解. 故名爲心.”, 한국불교전서 1-741상.
- 5) 『大乘起信論別記』, “設使二門雖無別體. 二門相乖不相通者. 則應眞如門中. 攝理而不攝理事. 生滅門中. 攝事而不攝理. 而今二門互相融通. 際限無分. 是故皆各通攝一切理事諸法. 故言二門不相離故.”, 한국불교전서 1-679중.
- 6) 『大乘起信論別記』, “眞如門是諸法通相. 通相外無別諸法. 諸法皆爲通相所攝. 如微塵是瓦器通相. 通相外無別瓦器. 瓦器皆爲微塵所攝. 眞如門亦如是. 生滅門者. 卽此眞如是善不善因. 與緣和合反作諸法. 雖實反作諸法. 而恒不壞眞性. 故於此門亦攝眞如. 如微塵性聚成瓦器. 而常不失微塵性相. 故瓦器門卽攝微塵. 生滅門亦如是.”, 한국불교전서 1-741중.
- 7) 『大乘起信論疏』, “初中言依一心法有二種門者. 如經本言. 寂滅者名爲一心. 一心者名如來藏. 此言心眞如門者. 卽釋彼經寂滅者名爲一心也. 心生滅門者. 是釋經中一心者. 名如來藏也. 所以然者. 以一切法無生無滅. 本來寂靜. 唯是一心. 如是名爲心眞如門. 故言寂滅者名爲一心. 又此一心體是本覺. 而隨無明動作生滅. 故於此門如來之性隱而不顯. 名如來藏.”, 한국불교전서 1-741상.
- 8) 고영섭은 원효가 일심지원과 일심을 구분해 말하고 있다고 단정하며 일심지원은 일심이 생겨난 근거, 일심의 근원이라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일심지원은 곧 一味, 一覺味이며 이는 진여문, 생멸문의 상위 개념으로 ‘본법으로서의 일심’을 드러낸 것이라 주장한다. 원효가 대승기신론소에서 일심을, 금강삼매경론에서 일심지원을 주로 논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는 대승기신론소에서는 일심이 지니고 있는 중생심으로서의 면모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일심을 주로 논하였으며, 금강삼매경론에서는 일정한 단계에 오른 이에게 ‘부처와 중생의 경계는 다르다’고 함으로써 수행의 질적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더 높은 단계의 깨침으로서의 일심지원을 설정하였다고 설명한다(고영섭, 2018: 105-108).
- 9) 고영섭의 논문에 따르면 一心之源의 용례는 동경대 원전검색시스템(SAT)으로 조사해 본 결과 원효의 금강삼매경론에서 4회, 대승기신론소에서 1회 찾을 수 있다고 한다. 다만 금강삼매경론에서 心源, 心之源이라는 표현도 다수 등장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표현까지 모두 포함한다면 그 용례를 더욱 많이 찾을 수 있을 것이다(고영섭, 2018: 103).
- 10) 『大乘起信論別記』, “爲道者永息萬境. 遂還一心之源.”, 한국불교전서 1-678상.
- 11) 『金剛三昧經論』, “欲明一切衆生本來一覺. 但由無明隨夢流轉. 皆從如來一味之說終歸一心之源.”, 한국불교전서 1-610상.
- 12) 『金剛三昧經論』, “住如是地. 心無所住. 無有出入. 入唵摩羅識.”, 한국불교전서 1-634중.
- 13) 『金剛三昧經論』, “入唵摩羅識者. 一心之體. 離二邊故. 歸此心源. 故名爲入.” 한국불교전서 1-634중.
- 14) 박태원은 일심지원을 ‘하나로 통하는 마음자리’라 옹기고 있다. 일심지원을 ‘마음의 근

원'이라 번역하면 자칫 대승기신론이나 원효의 일심사상을 '모든 현상을 연출하는 근원적 실체'에 연루시켜 일심이라는 기표를 결국 실체론의 바다에 던져버릴 가능성이 있음을 경계하기 때문이다. 이는 실체화의 위험으로부터 일심의 본 의미를 제대로 밝히는 적실한 시도라 평가할 수 있다(박태원, 2012: 20).

- 15) “칸트주의와 공리주의로 대표되는 의무론과 결과론의 특징을 기술할 때 지나치게 배타적으로 대비시키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의무를 따르는 것과 결과를 탐색하는 것 모두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교육부,2015b: 65).”와 같은 집필 기준과 비교해 볼 수 있다.